

“실생활 도움 주는 AI 제품 만들고 싶어요”



2023 으뜸인재 <18> 여수중앙여고 '위대한 과학' 팀

시각장애인 신호 감지 웨어러블 제품 개발 '청소년 노벨캠프' 대상 “게임·예술·의료 분야 등 활용 가능한 첨단 기술에 더욱 흥미 생겨”

“인공지능을 접목해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편의를 주면서도 이용자가 즐거워한다면 더욱 좋겠어요. 제가 웨어러블 기기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기술 개발에 관심이 많아요.”

서혜인(여수중앙여고 3년)양은 전남도가 추진했던 '청소년 노벨캠프'에 참여한 뒤부터 부쩍 하고 싶은 게 많아졌다고 한다.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를 비롯,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VR, AR, XR 기술을 게임 등 여가생활 뿐 아니라 의료, 예술 분야에 활용하는 과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시간도 늘었다고 한다.

서양은 지난해 전남도의 '청소년 노벨캠프'에 친구들과 참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웨어러블 인공지능 센서로 횡단보도 신호를 감지하는 제품' 등을 개발해 대상을 받았다. 같은 학교 친구인 이은경, 정시은, 김수정 양과 '위대한 과학'이라는 팀을 꾸

려 8개월 간의 연구 끝에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청소년 노벨캠프'는 전남도가 지역 고교에서 노벨상을 꿈꾸는 이공계 연구 동아리의 성장을 받아 자기주도적 연구를 하도록 특별 연구과제 수행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17~22팀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위대한 과학팀은 지난해 참가한 17개 팀 중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꼭 이어져야 하는데 끊겼다 다시 이어진 전자 블록이나 횡단보도에 설치된 시각장애이용 음향신호기를 접할 때면 궁금했거든요.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더 편한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다가 (노벨캠프 참여로) 깊게 연구할 기회가 생긴 거죠.”

위대한 과학팀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보전달 시스템으로 ▲모자나 옷에 탈·부착해 쉽게 횡단보도 녹색 신호를 감지하는 인공지능센서 ▲잃어버린 물건 위치를 알려주는 모바일 앱 등을 개발했다.



전남도의 '청소년 노벨캠프'에 참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보전달시스템 개발 연구로 대상을 받은 여수중앙여고 '위대한 과학'팀. 왼쪽부터 신철수 지도교사, 이은경, 서혜인, 정시은, 김수정양.

“처음엔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뭐가 불편한지, 어떤 게 필요인지 구체적으로 몰라 막연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관련된 분들 계정을 찾아 무작정 메시지를 보냈는데, 운 좋게 답변을 주셨어요. 모자나 옷에 부착 가능한 웨어러블 인공지능 카메라 센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렇게 한 겁니다. 처음엔 인공지능 센서를 지팡이에 부착하려고 했었는데, 지팡이가 무거워지고 바닥에 두드러다가 파손될 위험도 있더라고요. 정보 전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친구들과의 개발 과정에서는 '색깔을 인식해서 알림을 주는 방법이 더 실용적일까. 센서 기능을 옷에 부착하려면 배터리는 어느 정도 크기가 되어야 할

까' 등 또 다른 아이디어가 쏟아져 재미있게 연구를 진행했다고 한다. 앱 개발 등에 필요한 코딩은 신철수 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았다. 또 여러 논문, 책을 찾아보며 코딩을 익히고 카메라를 활용해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보행에 편의를 주는 방법을 연구했다.

“친구들과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여러 분야 지식을 접할 수 있게 됐고 반복적인 오류와 실험 과정을 끈기있게 이겨내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노벨캠프 참여 이후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통신기술 등 첨단 기술에 더 흥미가 생겼어요.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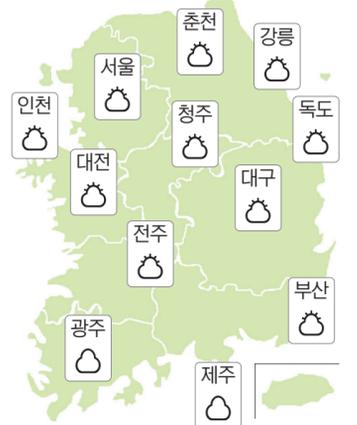
해돋이	06:31	달뜨기	23:05
해지기	18:10	달지기	13:40

쌀쌀한 가을

일교차 커 환절기 건강 관리 유의해야겠다.

광주	흐림	10/21	보성	흐림	9/22
목포	흐림	12/21	순천	흐림	10/23
여수	흐림	14/22	영광	흐림	10/21
나주	흐림	8/21	진도	흐림	13/22
완도	흐림	13/22	전주	구름많음	10/21
구례	흐림	8/22	군산	구름많음	9/21
강진	흐림	11/22	남원	흐림	7/21
해남	흐림	10/22	흑산도	흐림	16/20
장성	흐림	8/21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1.0~2.5	0.5~1.5		
	면바다(북)	1.5~3.5	1.0~2.0		
남해서부	면바다(남)	2.0~4.0	1.5~2.5		
	앞바다	0.5~1.5	0.5~1.0		
	면바다(서)	1.0~2.5	1.0~2.0		
	면바다(동)	1.0~2.0	0.5~1.5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1:26	06:18
여수	--:--	19:25
	06:38	00:11
	20:10	13:52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주의	보통	좋음

◇ 주간 날씨

7(토)	8(일)	9(월)
☁	☁	☁
14/21	15/22	14/23
10(화)	11(수)	12(목)
☁	☁	☁
13/23	12/23	12/22

광주솔로몬로파크-빛고을노인건강타운 협약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5일 '찾아가는 시니어 로스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법률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이 평소 궁금해 하시는 상속, 증여, 절세 등의 법률 교육과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춘덕 센터장은 “찾아가는 시니어 로스쿨을 통해 어르신들의 법률적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솔로몬로파크는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준 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어르신들의 복지가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협력 체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 2023 자살 예방 '생명사랑 포럼' 개최



전남도는 5일 나주 한전KPS 빛가람 홀에서 마을 이장단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 '생명사랑 포럼'을 개최했다. <전남도 제공>

'5·18 사형수' 김종배 전 의원 고구려대학교 명예총장 취임

1980년 5·18 당시 시민학생투쟁위원회 총 위원이었던 김종배(사진) 전 국회의원이 고구려대학교 명예총장으로 취임했다.

5일 고구려대학교에 따르면 김 전의원이 최근 고구려대학교 명예총장에 취임했다.

학교법인 아산학원 이사회는 김 전의원의 폭 넓은 의정활동 경험과 인적네트워크가 학교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명예총장으로 위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구려 대학교는 지난 7월부터 총장이 공석이다.

김 총장은 별도 취임식을 열지 않고 학교에 출근해 업무를 두루 살피고 있다.

그는 “내 자그마한 경험과 지식이 어려운 대학에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면서 “지역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 “현재 어떤 부문에서 고구려대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1980년 5·18 당시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계엄군에게 붙잡혀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5·18 사형수'로 불린다.

계엄군의 도청 진입작전을 앞둔 1980년 5월 27일 새벽, 광주 도심에 울려 퍼졌던 '광주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라는 가두 방송 원고도 직접 썼다.

3년 만에 풀려난 그는 김대중 대통령령에 의해 15대 총선에서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활동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정명호 전남대병원 교수 '장성군민의 상' 수상

정명호(사진)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장성군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5일 장성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성군민의 날' 행사에서 '장성군민의 상' 산업경제부문 수상자로 뽑혔다.

정 교수는 장성군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유치·설립 추진 과정에서 초기부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난 2009년 1월 국립심혈관센터 추진을 위한 정책포럼을 진행했으며, 2010년 10월에는 국립



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출범, 2017년 문재인 정권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정 교수는 “16년간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한 결과 유치가 확정되어 감개무량하다”며 “앞으로도 국립심뇌혈관연구소가 세계최고의 연구소가 될 수 있게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생활 게시판

화촉

▲정덕만·김미자씨 아들 영학군, 김용백(광주일보 보성 주재기자)·박남임씨 딸 우홍양 = 7일(토) 낮 3시 30분,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황령대로 401-9 그랜드모먼트 6층 시그니처층.

▲박병오·최은숙(해동홀어 대표)씨 아들 명선군, 김형년·문제숙씨 딸 예술양 = 15일(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위더스 웨딩홀 3층 아모르홀.

알림

▲광주 복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6일(음 8월 22일 丁酉)

☎ 010-9790-8237



36년생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목격하였던 바다다. 48년생 타격을 받지는 않으니 무시해도 된다. 60년생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다뤄야 한다. 72년생 재물이 들어오는 운세로 향하고 있으니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 84년생 도움과 관심이 모아져서 길사가 꽃핀다. 96년생 가파른 것이 그대로 인식하면 된다. 행운의 숫자 : 49, 58



37년생 준비하고 있으면 적기에 용처가 나타나리라. 49년생 기본권 것을 무시하지 말라. 61년생 미처 의식하지 못한 수도 있다. 73년생 분위기의 조성이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85년생 바람직한 여건이니 적극적으로 수용해도 된다. 97년생 면밀히 살펴본다면 여러 곳에서 손질해야 할 부분이 눈에 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4, 85



38년생 과신함은 참으로 곤란하다. 50년생 이중성을 피고 있다. 62년생 강도 높게 대처하지 않으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다. 74년생 탈출구를 모색하더라도 쉽지 않은 것을 하니 각오하고 임하라. 86년생 단순하거나 감각적인 판단은 오류를 부를 것이니 다자 관계를 염두에 두고 처리하라. 98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행운의 숫자 : 48, 97



39년생 이면의 결함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1년생 내면의 실속뿐만 아니라 형식과 외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라. 63년생 인정을 무겁게 하되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이롭다. 75년생 반가운 이를 만나서 기쁨을 나누리라. 87년생 소망하는 바를 향해 매진한다면 이루어지겠다. 99년생 결정적인 시기가 거의 임박했다. 행운의 숫자 : 45, 61



40년생 액운이 보이니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52년생 처음처럼 깔끔하게 해나가지 않으면 부실해지기 쉽다. 64년생 무의미한 것은 과감하게 탈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76년생 생밀밀하게 보살피며 위기를 넘기게 된다. 88년생 핵심 골자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00년생 희망을 가져도 좋은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10, 62



41년생 길운이 순조로움을 부르니 저절로 흥겨운 컷노래가 나올 것이다. 53년생 대단히 신기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날이다. 65년생 상호 증진을 위한 아낌없이 기꺼이 감수하라. 77년생 오래갈 인연이 아니니 마음을 비우고 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89년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01년생 하자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7, 84



42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다. 54년생 약조건이 오히려 효재를 부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66년생 한 번 시작하면 술술 풀려 나가게 될 것이리라. 78년생 목은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법이다. 90년생 분량을 헤아리는 것보다 질을 따져봐야 상책이다. 02년생 희망적이다. 행운의 숫자 : 24, 65



43년생 노고를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발생하는 동세이다. 55년생 핵심 가치를 좇는다면 반드시 실리가 따를 것이다. 67년생 훨씬 양당겨져서 처리되는 세계이다. 79년생 불만족스럽다면 원인 요소부터 면밀히 살펴봐야겠다. 91년생 원대한 계획으로 임해야 값진 수확을 할 것이다. 03년생 주변의 기류에 영향을 받는다. 행운의 숫자 : 03, 56



44년생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일이 원하는 대로 이뤄질 수 있다. 56년생 필수적인 것들을 간과하면 오히려 손실을 보리라. 68년생 상대의 고민거리를 해결하다 보면 자신의 문제도 가닥이 잡힌다. 80년생 체면을 의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92년생 선점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04년생 사고의 전환만 하면 된다. 행운의 숫자 : 18, 92



45년생 절치대로 투명하게 처리함이 나올 것이다. 57년생 체면이나 허욕을 버리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69년생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81년생 현재의 정황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93년생 확실하게 수용하는 편이 나올 것이다. 05년생 썩 먹고 알 먹는 일이 생기겠다. 행운의 숫자 : 16, 74



34년생 능동이 진담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을 아껴라. 46년생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충분히 가져야겠다. 58년생 구체적이지 않으면 뜬구름에 불과하다. 70년생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라. 82년생 지난 날에 쌓았던 공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리라. 94년생 새로운 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잘 살펴봐라. 행운의 숫자 : 00, 79



35년생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머지않아서 회복할 수 있다. 47년생 불협화음이 보인다면 주관적인 면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대처해야 옳다. 59년생 알면서도 빠져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71년생 바른 생각은 복주머니를 만드는 셈이다. 83년생 타협고 논의해야만 수긍하게 된다. 95년생 고역이 따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4, 75